

玉山張氏族譜序

英祖四十五年（一七六九）己丑

吾張之為山東方盛族不知幾百年而
 世代已遠其教益微原其根源有誰
 詳之 文康公在祀曰武公為張氏出
 以中原人古有一將奉帝命表征伐
 東田留一子遙為東人此乃但知其
 石聞非其的托也各其家所傳曰中原

大光公主出來時學士陪來而其中
 有張學士我國之張如於此云而如
 此真的文字而之準信至後定單
 之收聚傳說隨所隨祿世代多次字
 諱官爵尤不詳且明矣而不敢強公
 為真只自此類中一不恨其準信
 地矣近不得見因乘此國蔭公諱吉

以中朝人未東國封仁同府院
 又宅祠于蘆田之即仁同為南十餘里
 乙卯也既封仁同之殿享步仁同則國蔭
 以仁同人明夫至張之貫玉山書知
 不權與書此也杜慎至之道不能以爲
 當族後日考行耳速至我上將軍院
 祖為十餘世以下第代昭穆終而為

事蹟勲業燦然可傳達官崇品顯赫
 談休大賢名儒先後接武蟬聯煥燦
 耀一以至今文章宏傑上才大少科甲之
 榮代不乏絕雖今日後孫之隱先業不振
 如此而世人謗曰為以甲族而祖先之
 積德累仁而流澤於雲仍尚能若是噫
 願善種美於後代而承厥綿緜永以傳

理之必有如是夫獨恨去龍蛇之文
 各自國生風靡波蕩轉徙移而墨
 黑換蓬弱相陽面自馬名相識聲息焉
 不相通焉若飛風頭不知散落何處
 則至于今日至世代行為以然而為其
 幸因之康公都後死此僅為其少子
 為其父也今亦作譜一日速近諸學究

後來到墓可考心裏成一梭於是乎來支
 有為年代不愈昔之不明者今焉如明向
 之未也其今之始也此豈非至要乎
 本幸耶至中子代焉中絕而石相
 唐居後之絕在而不及來此終名得自
 借實見其中多事也然日後如有可
 信之蹟及追後願入者則必無誤也

之道耶噫諸宗系公雖有迹近之殊
 之各流祖先傳載一統之中則雲擁星
 散屋不待相同嘉慶壬子事或有不
 逮而括至一祖之妙也永言思之能不
 懷感乎中解一經公以後由根而尋葉
 自源而漸派不問在遠而益篤敦厚
 之風莫什有卑卑之競盡和好之意哉

不長眉睫之穴參急之嫌之典之較
 以至億萬斯年之久而多揚念也
 而勿替射人將指之不日姍睦之門
 至名然於程夫子所謂格來族厚風俗重
 至托乎端里樂土已廿五載體
 先軍之遺
 意而追阮往之來遑云爾

後孫僉中樞趾學八十五歲謹序

옥산 장씨 족보서

우리 장씨가 이 나라에서 성족(盛族)이 된 것은 몇 百年이 되었는 지 알 수 없으며 세대가 이
미 멀어지고 문헌도 징거(徵據)할 수 없어서 원초(原初)의 근원을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다. 문강
공(文康公)의 수기(手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 장씨가 본래 중국 사람으로서 옛날에 한 장수가 있었는데 제명
(帝命)을 받들고 우리 나라를 정벌하러 왔다가 아들 한 분을 남겨 두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 나라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다만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지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처의 기록에는 『중국의 대광공주(大光公主)가 나을 때에 팔학사(八學士)
가 모시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 장학사(張學士)가 있어서 우리 나라의 장씨는 여기에서 비롯되었
다.』

라고 하였으나 역시 확실한 기록이 아니어서 꼭 믿을 수가 없다. 그 밖에도 선배들의 전설을 수집
하여 수문수록(隨聞隨錄)(수소문하거나 들은 것을 기록함)한 것이 세대의 차서(次序)와 자, 휘, 관작(字諱官爵)에
대해서 상세하고 분명하지 아니함은 아니나 그 역시 억지로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으
로 다만 마음에 의심을 갖게 되어 빙신(憑信)(믿을 만함)할 곳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러던 중 근래
에 또 국승(國乘)(나라의 역사)을 얻어 보니,

『포음공(圖蔭公)의 휘는 길(吉)인데 중국인으로서는 우리 나라에 와서 인동부원군(仁同府院君)에
봉해졌고 또 노전(蘆田)에 사당을 세웠다.』
고 하였는데 노전은 곧 인동부의 남쪽 十여 리가 되는 곳이다. 이미 인동에 봉해졌고 또 인동에서

철향(膠享)(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지냄)을 하였으니 포음공이 인동인(仁同人)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장씨가 옥산으로 관향(貫鄉)을 삼게 된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그 신중한 도리에 있어서는 감히 꼭 그렇다고 단정(斷定)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후일의 고정(考訂)을 기다려야 하겠다.

우리 상장군(上將軍) 선조에 이르러서는 수십세(世) 이하로 세대와 소목(昭穆)이 정연하게 차례가 있고 사적(事蹟)과 훈업(勲業)이 찬연(燦然)하여 전할 만하며 달관(達官)과 승품(崇品)(관)도 대대로 끊이지 않았고 대현(大賢)과 명유(名儒)가 전후에 줄을 이었는가 하면 계속되는 현혁(烜赫)(위세)이 일세(一世)에 떨치고 빛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장이 굉걸(宏傑)(굉장하고 웅장함)한 재사(才士)와 대소과갑(大小科甲)(과외과외소과의과거)의 영광까지도 대대로 끊이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오늘날 후손들이 선조의 유업을 실추시켜 진작하지 못함이 이 같으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명문갑족(名門甲族)이다』라고 하니 진실로 조선(祖先)들이 쌓은 인덕을 후손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아! 선대에서 선행에 힘쓰고 미덕을 숭상하면 후손이 경사를 누리고 복록을 받을 것이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로서 그러함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각자가 삶을 도모하다가 보니 바람따라 썰리고 물결따라 흐르게 되어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월이 여러번 바뀔에 따라 봉래산(蓬萊山)과 약수(弱水)가 서로 막혀서 면목(面目)을 서로 알지 못하고 성식(聲息)은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꽃이 어느 곳에 흩어져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 그 세대와 항서(行序)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겠는가? 다행히 문강공(文康公)께서 임진왜란 후에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하여 겨우 누주의 아들이 누주의가를 알았을 뿐이다.

이번에 족보를 만드는 날에 원조의 보단(譜單)(족보의 단일)이 선왕하여 음이로서 참고하고 교정(較

正)하여 보책(譜冊)한 질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니 본지(本支)의 차례가 있고 세대가 분명하여 저
 서 옛날에 밝히지 못하였던 것이 이제야 비로소 밝아졌고 지난날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야 비로
 소 알게 되었다. 이 어찌 우리 종족의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 가운데는 대계(代系)가 중절(中
 絶)되어 상속(相屬)이 못되고 거주가 절원(絶遠)해서 미처 오지 못한 이는 마침내 동보(同譜)를
 할수 없었으니 이는 사실 다행 중에 불행이다. 그러나 일후(日後)에 만일 믿을 만한 문적(文蹟)과
 추후하여 원입자(願入者)가 있다면 어찌 변통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아! 제종(諸宗)은 계분(系分)에 있어서는 비록 원근의 차이가 있으나 각 파의 조선(祖先)이 모
 두 일질(一帙)의 보책 가운데에 실려 있으니 비록 각처에 흩어져서 거처는 서로 같지 못하고 회
 경(喜慶)과 우조(憂吊)의 일에 대해서 혹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모두가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감창(感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뿌리로 말미암아 가지를 찾
 고 원천으로부터 줄기를 찾아 원근을 따지지 말고 도후한 풍속을 더욱 돈독히 하며 존비를 헤아
 리지 말고 힘써 화락한 뜻을 다하여 혹 미첩(眉睫)의 실수와 서류(黍黍)(은양)의 혐의가 있더라
 도 서로가 그것을 계교(計較)하지 말고 억만년에 이르도록 대대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여 해이(解弛)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가리켜서 『인목(姻睦)(인연친교)』화목함한
 문중이다.』라고 할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정자(程子)가 말한 『종족을 수습하면 풍속이 후
 하게 된다.』고 한것이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족보를 완성한 것은 기축년(一七六九)이었는데 대개 선배의 유의(遺意)를 따라 기왕에 못한 것
 을 추술(追述)한 것이다.

후손 침지증추부사 지학(趾學) 八十五세에 삼가 쓰다.

純祖二十八年（一八二八）

仁同張氏族譜重刊序

惟家高才之張貫子仁同先生為可
 之安志在均乞之祖之孫歟自經兵燹
 流徙播昭穆耳慈祖同族人等不家惜
 粵在己丑 先生等悅然曰無古修譜
 若多之後收其古蹟之係 文康公遺
 所以 神虎衛上將軍公為白晁祖

遂成四史備於焉一甲子周書
 卷之七卷之八卷之九卷之十
 卷之十一卷之十二卷之十三
 卷之十四卷之十五卷之十六
 卷之十七卷之十八卷之十九
 卷之二十卷之二十一卷之二十二
 卷之二十三卷之二十四卷之二十五
 卷之二十六卷之二十七卷之二十八
 卷之二十九卷之三十卷之三十一
 卷之三十二卷之三十三卷之三十四
 卷之三十五卷之三十六卷之三十七
 卷之三十八卷之三十九卷之四十
 卷之四十一卷之四十二卷之四十三
 卷之四十四卷之四十五卷之四十六
 卷之四十七卷之四十八卷之四十九
 卷之五十卷之五十一卷之五十二
 卷之五十三卷之五十四卷之五十五
 卷之五十六卷之五十七卷之五十八
 卷之五十九卷之六十卷之六十一
 卷之六十二卷之六十三卷之六十四
 卷之六十五卷之六十六卷之六十七
 卷之六十八卷之六十九卷之七十
 卷之七十一卷之七十二卷之七十三
 卷之七十四卷之七十五卷之七十六
 卷之七十七卷之七十八卷之七十九
 卷之八十卷之八十一卷之八十二
 卷之八十三卷之八十四卷之八十五
 卷之八十六卷之八十七卷之八十八
 卷之八十九卷之九十卷之九十一
 卷之九十二卷之九十三卷之九十四
 卷之九十五卷之九十六卷之九十七
 卷之九十八卷之九十九卷之一百

五宗雅藩衍之業祖先垂祧之蔭
 為少行步之世重傳之自偏播傳宗
 持其子家之蹟而來到故之依同
 杞公奇首之居隸吾通甸德美為
 追附其生教宗之德生之愛其睦凡
 金宗尊尊之疎遠之自教睦遠之百代
 之德起之愛起之愛傳之德在之愛

多雅公月七

後弱折衝收軍駐驍衛

副統軍之出繼士無不效死

討捕使守初稀之緩乎

「解」

우리 東方의 張氏가 仁同으로 貫鄉을 삼은자 世上에 많으나 어찌 한 할아버지 子孫이 아니겠는
가 尺蠖을 겪은 후로부터 各派가 譜牒을 잃어서 行列을 증거 할 수 없고 거의가 길가는 사람과
갈이 되니 어찌 탄식하고 아까운 일이 아니리오. 지난 己丑年에 先父老들이 慨然히 譜牒을 닦을것
에 뜻이 있어 八路에 글을 발송하여 옛 자취를 거두어 모아서 역시 文康公 遺錄에 依據하여 神虎
衛上將軍公을 鼻祖(始祖)로 삼고 드디어 四卷譜를 이루니 어언 一甲周(六十年)에 或三世가 되는
집도 있으며 譜에 들지도 못한 집도 있으며 或七十老人도 들지 못하고 繼承의 譜에 빠진 집도 있
는지라. 丙戌年에 閣宗老少가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의논하여 거의 四年만에 이제 비로소 일을
마치니 千年舊族과 遠近宗支가 冊을 펼쳐보니 그 내용이 빛나고 빛나도다.

族譜를 닦으니 古今의 年條가 相符하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느냐. 아! 六十年間에 四卷의 譜牒이
十餘卷에 이르렀으니 우리 宗族이 가히 參考할만한 자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결같이 同樞公
序文에 기록한 바에 依하여 句語를 變通하고 參酌하여 追加로 부치니 그 敦宗之誼가 어찌 아릅답지
않으리요. 오직 여러분들은 뜻아서 疎遠타 하지 말고 각자 敦睦하야 百代의 情誼를 遵守하여 힘쓰
고 힘쓸지이다. 譜牒은 己丑年 초여름에 완성되다.

仁同張氏族譜重刊序

程子曰厚風俗而治國者必先正其俗而後正其政
族而治譜者必先尊其祖而重其也降者
也衆之所爲未幾之壹莫不奉之而此而爲
喪世後復繼繼流波索類則安知尊榮
輜輝一治治之爲乎此譜家所以詳近
而略遠務貴而闕於者也惟吾張以譜

一道族裔迭經昭刊未已而荒立科
 條再刊未戍子而仍執不為創昭穆宗
 支終然有序而以信傳信以睦傳睦為
 吾家一系春秋則以必繁置多侯為第
 一非戍子殆至五十星霜居然之間人事
 累變世代已遷而某之為某子某之為某孫
 此其詳則變行少親而重而同路人

才美德茂之曜星之懼多聲令儀努力
 修端之役而北事平未幾就事壬申秋死
 卷表之多比嘉增四子皆吾先祖積累
 德蔭法美而重以形而隆夫刻刻南
 完全宗氏以不肖也預星役清而文而
 弁之碩而顧預星之爲星役而事
 係先世少之以此而爲畧從茲語取之

同樞公序末心乎我同譜之人均是
 同祖之族則各自兢惕世系世傳或相
 親睦永保宗法豈不若為古宗勉焉

東家申氏為古法孫斗鑑
 拜手謹識

〔解〕

程夫子께서 風俗을 두터히 하고 根本을 잊어 버리지 않음이 모름지기 이것이 譜를 밝히는 것이
 라 하니 대개 族을 거두고 譜를 다스리는 것은 그 祖上을 높이고 그 根本을 重하게 여기고자 함
 이다.

옛날 蘇老泉의 序述인 東萊之圖에도 이것에 精誠을 드리지 않음이 없었으니 후 世代가 멀어지고

分派의 흐름이 번거롭게 나누워진 즉 崇禎가 郭汾陽의 墓에 拜함(남의 묘에 절함)이 어찌 없겠으며 어찌 알겠느냐. 이것이 譜家에 가까운데 것을 자세히 보면 대 것을 간략하게 하여 實狀에 힘쓰고 의문점을 없게한 所以이다. 오직 우리 張氏의 한권 族譜가 旅軒先生이 남긴 記錄을 遵守하여 己丑년에 비로소 發刊하니 嚴正하게 規則을 세웠고 戊子年에 再刊하니 내려오는 예에 따랐도다. 昭穆宗支가 秩序있게 順序가 있어 信으로써 信을 傳하고 의심으로써 의심을 傳하니 우리 집 一部の 春秋가 된 즉 반드시 거듭 쌓음이 必要치 않을 것 같으나 이 役이 지금으로 부터 戊子年이 거의 五十星霜이라. 어느 사이에 人事가 여러번 變하고 世代가 이미 옮겨져서 아무는 아무의 아들이 되고 아무는 아무의 손자가 됨을 가히 자세히 알지 못한 즉 거의가 친함을 다하지 못하니 갈가는 사람과 어찌 같다 하지 않으리요. 여러 族老들이 이것이 두려워 뜻과 의론을 합하여 譜 役에 힘을 수고롭게 한 즉 辛未년 여름에 시작하여 이듬해 壬申가을에 마치니 그 卷帙이 옛날에 비하여 四、五卷이 많아졌도다. 이것은 우리 先祖가 쌓은 蔭德이 子孫에게 까지 미쳐 慶事가 흐름을 이로서 증명된다. 인쇄가 다 되어 감에 僉宗氏들이 不肖로 이 役에 對한 序文을 하라고請 하니 돌아보건대 내 비록 事理에 通치 못한 사람이라 足히 이 일을 감당치 못할 것이지만 일이 先世에 關係되어 可히 하찮은 글이나 마 사양치 못할세라 간략히 몇마디 감히 中樞公 序文 끝에 綴함 이다.

아! 이제 族譜를 같이한 一家는 同祖의 孫인즉 各自가 조심하고 두려워 하여 더럽힘이 없게 하고 永遠히 保全함이 나의 바람이며 이에 吾宗은 힘쓸지어다.

歲壬申重陽節(一八七二)

後孫 斗鉉 拜手謹識

仁同張氏世譜重刊序

高宗九年（一八七二）甲辰

氏族者崇昔史官之所記也周小史掌邦國誌而奠世系辨昭穆故立大小宗之法爲上下治之資以之尊尊親親而合族之道存焉始必有魁偉碩德之人勲澤福蔭延及子孫蓋不得不爲譜而記其族譬若萬嶽千麓出於崑崙然地必曼迤而後崧高起焉族必蕃庶而後傑巨作苟無德業聲施重配舊烈者則譜雖充棟何益於門戶之衰遲也是知譜者尊祖而收族收族而篤倫上究於有姓之始旁推於無服之後由近而至遠自內而及外非有記載之詳曷以知繼承之序別親疎之等而爲傳世訓也哉惟我

先祖文康公自經龍蛇之後世代寢遠不可強詭故曰以

上將軍公爲鼻祖其下世系昭穆秩然有序矣己丑譜始成
四卷冊子而晚忍堂公溯其來歷而弁序之戊子譜因成十
餘卷冊子而居然齋公舉其事實而弁序之壬申譜又成十
七卷冊子而竹塲公序之吾宗蕃衍之慶祖先厚蔭之澤爲
如何哉程夫子曰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系
蘓老泉曰一人之身分而至於道人吾譜所以作也觀吾譜
孝悌之心油然而生蓋譜者愛敬之本敦睦之義也今於辛
丑又發重刊之論遠近譜單先後來到叅互考正裒成一秩
迄役於甲辰孟夏噫本支百世摠之爲一祖之孫則昔之或
漏者今可以不漏向之未詳者今可以必詳不問遠近而益
壽收厚之貳莫計親疎而務盡和好之誼則恨深而枝茂原

遠而流長矣寧不愴感於中者耶忘拙畧敘之

後孫崇政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弘文館學

士 經筵特進官錫龍謹撰

「解」

氏族이란 태고때 崇常의 史官을 記錄한 바이니 周나라 小史가 나라를 말아서 記錄할적에 世系를 定하고 昭穆을 分別하는 故로 크고 작고간 으뜸이 되는 法을 세워 上下에 다스리는 바탕이 되어서 尊者를 높이 여기고 親한 이를 親하게 여기어서 一族을 合하는 道가 存在하니 처음에는 반드시 魁偉碩德한 사람이 있어 勳澤(공훈 해택)과 福蔭(복과 음덕)이 子孫에게 까지 미쳐 뵈으니 대개 族譜를 하지 않으면 그 氏族을 기록할 수 없음이라. 비유컨대 萬嶽千麓이 崑崙山에서 나온 것과 같음이라. 然이나 땅이 반드시 뻗어 나간 뒤에 主幹스럽고 큰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진실로 德業의 소리가 배풀어 짐과 거듭 舊烈들에 짝하는 것이 없으면 族譜가 비록 집을 채운들 門戶가 衰해지고 發展이 遲延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譜를 아는 者 祖上을 높혀서 收族을 하고 收族을 하여서 人倫을 敦篤히 해서 위로는 姓의 시작됨을 研究하고 옆으로는 無服한 일가에 까지 미루어서 가까운 데로 말이 암암 먼 데까지 이르고 안으로 부터 밖에 까지 미치니 이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면 어찌 繼承의 順序를 알고 親疎의 等級을 區別하여 代代로 가르쳐서 傳할 수 있으리요. 오직 우리 先祖 文康公이 龍蛇의 亂(壬辰倭亂)을 겪은 후로 부터 世代가 점점 멀어짐에 가히 억지로 記錄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上將軍公을 鼻祖로 하고 그 이하 世系는 昭穆이 秩序있게 順序가

되어있다. 己丑譜가 비로소 四卷冊子로 晚忍堂公이 그 來歷을 소급해서 序文을 했고 戊子譜 十餘卷冊子를 이름으로 해서 居然齋公이 그 事實을 들어서 序文을 했고 壬申譜도 또 十七卷冊子를 이루어서 竹塢公이 序文을 하였으니 吾宗의 藩衍한 慶事와 祖先의 厚蔭之澤이 어찌 했드나. 程夫子가 말하기를 宗族을 거두고 風俗을 두터히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根本을 잊지 않음이 모름지기 이것 이 族譜系를 밝힘이라 하고 蘇老泉이 말하기를 한 사람의 몸이 갈라져서 길 가는 사람으로 보기가 지 이르게 되니 이에 내가 族譜를 만드는 까닭이라. 내 族譜를 보면 孝悌의 마음이 油然而 일어나니 대개 譜라는 것은 愛敬의 根本이요 敦睦의 뜻이다. 이제 辛丑年에 또 重刊할 論議를發하니 遠近間의 譜單이 차례로 이르러서 參互考正함에 一帙을 모아 이루어 甲辰孟夏에 役을 마치니 아! 本支百世가 다 一祖의 子孫이 된즉 옛날에 후빠지자가 지금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전에 모르던 자가 지금 가히 알게 되었으니 遠近을 묻지 않아도 더욱 敦厚之風이 敦篤하고 親疎를 計較함이 없이 和好한 情誼를 다함에 힘쓰는즉 뿌리가 깊어 가자가 무성하여 根源이 멀어서 영원히 흐를 것이리라. 어찌 마음속에 빠져리게 느껴지지 않으리요. 拙劣함을 잊고 간략히 序하노라.

後孫 崇政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事

弘文館學士經筵特進官 錫龍 謹撰

仁同張氏大同譜序(丁未一九六七年)

有大木於斯雖千其枝萬其葉而本乎一根以是而喻諸人宗而族其麗千萬而推之以上乃一祖之孫也以一祖之孫而代遠族大不能同吳中之居而流離分散至有面目之不相識慶吊之不相

問焉則安得不爲塗人也哉此譜法之所由興也而譜亦有二道曰大同曰派譜然而世之爲譜者大率多止派譜而其於大同鮮有見焉者亦何哉蓋以大同者人衆而難諧派譜者事簡而易就也吾張之譜昉於 文康公所錄而自是譜之者不止一再然非大同而皆止爲一派其亦取便於事簡也今於是譜之始役咸曰譜所以明先系而收宗族也明先系則貴詳其遠收宗族則貴及其疎欲其詳於遠而及於疎者則非大同曷以哉於是乎所謂難諧者不謀得諧而一國之爲吾姓者舉同於是譜一開卷有如百千諸孫唱諾於一祖之前而不知遠者之爲遠疎者之爲疎其於程夫子所云收宗族厚風俗而不忘本者庶幾得之矣豈不韙哉至於規例舉以先規爲準而亦不無參酌於其間各家先德之遠未及詳者一依本單書之勢然也上系則 文康公以 上將軍先祖爲起頭之祖而今則以 忠獻公圖蔭先生爲得姓始祖以詳於遠也在昔己丑之譜僉中樞公有序以圖蔭公明證爲仁同人而曰吾姓之貫玉山安知不爲權輿於此也耶今譜之以 圖蔭公爲始祖者未必非中樞公之遺意而其曰當俟後日考訂者其或有俟於今日者歟余又有一言吾姓前乎是譜以一祖之孫而爲塗人後乎是譜以塗人而復知爲一祖之孫自今而不以代遠而爲遠派別而爲別又不以南北枝之有寒暖爲心而益修惇睦有木替於永世則是譜之作奚但爲吾宗之一大幸也抑亦有補於世教也盍相勉之哉役始於丙午春功告訖於丁未秋僉宗以余謂有終始於是役而要有一言謹書此于卷端

檀君紀元四千三百年丁未秋

后孫禹鉉謹序

여기 큰 나무가 있으니 비록 그 가지는千이요 잎사귀는萬이라 하나 그 根本은 한 뿌리에서 비롯했으니 이로써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종족들이 그 數가 千萬이라 하나 위로 올라간다면 곧 한 할아버지의 子孫이다. 한 할아버지 子孫으로써 代數가 멀어지고 종족이 커져서 吳나라(源文正公의 宗族이 吳中에 많이 산데서 연유된 말) 가운데 같이 살수가 없고 헤어지고 흩어져서耳目이 있으되 서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慶吊事에 서로 問安하질 못하는 데 이른다면 어찌 길가는 사람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는 族譜하는 法이 緣由해 일어난 所以이며 族譜도 또한 道가 있으니 일러 大同譜와 派譜이다 그러나 世上에 族譜하는 者는 대체로 派譜하는데 그치는 例가 많으며 大同譜하는 사람은 보기가 드므니 또한 어쩔일이가 대개 大同譜는 사람의 數가 많고 합하기가 어려우며 派譜하는 일이 簡略하고 成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 張氏의 族譜는 文康公 記錄한바에 始作해서 이로부터 族譜한 것이 한들이 아니나 그러나 大同譜가 아니고 모두 派譜에 그쳤으니 그 또한 일이 간략한 便利를 取한 것이다 지금 族譜하는 일을 始作함에 모두 말하기를 族譜는 先代의 世界를 밝히고 宗族을 거두는 所以이니 先代의 世界를 밝히즉 그 번데 상세한 것이 貴하고 宗族을 거두즉 그 疎遠한데 미치는 것이 貴하니 그 번데 詳細하고 疎遠한데 미치고자 하면 大同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이른바 和合하기 어려운 者가 僻하지 않아도 和合하여 한나라의 우리 姓된 것이 모두 이 族譜에 같으니 한 권의 책을 열면 百千의 子孫들이 한 할아버지 앞에 읊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먼자가 멀어지고 소원한 자가 소원해 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程夫子의 이르는 바 宗族을 거두고 風俗을 厚하게 하여 根本을 잊지 않는 것을 거의 얻을 것이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

法規와 範例에 이르러서는 모두 先代의 規例로써 準則을 삼았으나 또한 그 간에 參酌한 것이

없지 않았으니 各家의 先代의 德이 멀어서 詳細한데 미치지 못한 것을 본 수단에 의해서 쓰는 것은 勢가 그런 것이요. 上系인즉 文康公이 上將軍 先祖로써 처음 始祖로 삼고 지금은 忠宣公 圖蔭先生으로 得姓의 始祖로 삼은 것은 먼데서 詳細하기 때문이다. 옛날 己丑年 族譜가 있었는데 僉中樞公이 序文을 써서 圖蔭公이 仁同人이라고 밝게 證明하고 말하기를 우리 姓의 貫鄉 玉山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지금 族譜에 圖蔭公을 시조로 하는 者는 또 말하기를 마땅히 后日의 考證을 기다리는 것은 그 或 今日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내가 또 말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 姓이 이 族譜가 있기 前에는 한 조상의 后孫으로써 길가는 사람이 되었으나 이 族譜 后에는 길가는 사람으로써 한 할아버지의 子孫이란 것을 다시 알게 됐으니 지금으로부터 代數가 멀다고 해서 멀어지지 말고 派가 다르다고 해서 區別하지 말 것이며 南北 가지(枝)의 한난한 것이 있는 것으로 마음을 삼지 말고 더욱 惇睦하여 永世토록 변치 않는다면 이 族譜만드는 것이 어찌 우리 宗族의 큰 多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世上敎化에 보충하는 것이 있으니 어찌 서로 힘쓰지 않겠는가 丙午年 봄에 일을 始作해서 丁未年 가을에 마치니 여러 宗人이나들이 일에 始終 關與했다 하여 한마디하기를 要請하니 卷端에다 삼가 이것을 적는다.

檀君紀元四千三百年丁未秋(西紀一九六七)에、

后孫 禹鉉은 삼가 序한다

仁同張氏大同譜重刊序(丁丑)

夫人之生也必有姓而有族有姓而有族則不能無譜譜也者述世德詳家乘以敦崇祖之誠明世系辨昭穆克守睦族之誼此譜之所由作也然而代漸遠而族愈繁族愈繁而誼易疎則亦不無世

世增修重刊也惟吾貫仁同之張氏以高麗三重大匡神虎衛上將軍府君爲鼻祖連綿至於三十
九世其數五十餘萬而其麗千萬道學文章圭組簪纓繼繼承承蔚然爲東邦之大姓其爲譜者昉
自文康公手錄以後或數紀或數世而續修重刊者凡五於丁未又經三十年于茲矣非徒宗族之
益繁顧今世途日喪禮俗頽廢又人文急進桑瀾忽變十世舊庄一朝異域棄鄉離親散在四方慶
不賀憂不吊將相視如路人也譜之重刊莫切於此時諸族齊聲合謀竭力修譜始於甲戌春訖於
戊寅春其圈帙增至十九之多祖先之積累餘蔭流慶於雲仍於斯可驗矣嗚乎吾張發源起派之
由祖先至行懿德之實既悉於前刊諸序今不敢贅言竊惟僉宗同是一祖之衆孫先祖視之豈有
親疎之分哉惟願體念先祖均視之心式好無猶益勤乎崇祖之誠睦族之途無忝世德則庶不負
今日重刊是譜之義也刊事告竟僉宗命余以一言謹書所感於卷端云爾 丁丑

後孫承熙謹書

〔解〕

무릇 사람이 나면 반드시姓이 있고宗族이 있으며姓과宗族이 있으면譜牒이 없을수 없으니
譜牒이라는 것은世德을記述하고家乘을자세히하여祖先을崇慕하는정성을敦篤하게하며世系
를 밝히고昭穆을分別하여睦族의誼를지켜나가도록함이라 이것이譜牒을만들게된 까닭이었다.
그런데世代가漸次로 멀어지면宗族이 더욱繁盛하고宗族이 더욱繁盛하면族誼가疎濶해지
기가 쉬우니 또한 대대로增修하고重刊하지 않을수 없다.

생각컨대貫鄉을仁同으로한우리張氏는高麗의三重大匡神虎衛上將軍府君을鼻祖로하여至
今까지連綿三十九세에그數가五〇餘萬에이르렀으며道學文章과圭組簪纓이繼繼承承하며우

뜻하게 東邦의 大姓이 되었다。

譜牒을 만든 것이 文康公 旅軒先生이 舊譜를 記誦하여 作成한 手錄에서 비롯한 뒤로 或은 몇 紀 或은 몇代만에 繼續重刊한 후 지나간 丁未年(一八九六)까지 모두 다섯차례였으며 그로부터 지금까지 또三十年 卽 한世代가 지나갔다. 다만 宗族이 더욱 繁盛하였을 뿐만 아니라 現實을 돌아보면世上의 道義가 날로 없어지고 禮節의 風俗이 무너졌으며 또한 人類文化의 急激한 進歩로 갑작스레 桑田碧海로 變하여 十世의 옛터전이 하루아침에 다른 地域으로 되어버렸다. 이로 인하여 故鄉을 버리고 親族을 떠나 四方으로 흩어져 기쁜 일에 慶賀하지 못하고 喪事에도 吊問하지 못하여 將次 路人처럼 되어버릴 것이니 譜牒의 重刊이 이때보다 더 切實할 때가 없었다.

이에 諸族이 같은 소리로 合議하고 心力을 다하여 譜牒을 닦을새, 甲戌年(一九九四年) 봄에 시작하여 戊寅(一九九八年) 초봄에 마쳤으니 그 卷數가 十九冊의 많은 數에 이르렀다 이것은 祖先이 쌓으신 어진 德의 餘韻이 後孫들에게 흘러와 이처럼 繁盛하였음을 證驗할 수 있다.

아! 우리 張氏의 根源과 分派의 由來및 祖先의 至極한 行實과 아름다운 德은 前에 刊行된 여러 序文에 이미 다 記述되어 있으므로 敢히 거듭 말하지 아니한다. 가만히 생각하니, 여러 宗親은 다 같이 한 할아버지의 後孫이라 先祖께서 보실적에 어찌 親疎의 區分이 있겠는가. 오직 원컨대 先祖께서 均一하게 보시는 마음을 깊이 생각하여 서로 사랑하고 같이 말아서 祖上을 崇慕하는 正성과 宗族끼리 和睦하는 道理에 더욱 힘써 代代로 쌓아 傳해온 아름다운 德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오늘이 譜牒을 重刊하는 뜻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刊行의 일을 끝내고 僉宗이 나에게 한마디 말을 쓰라하기에 삼가 느낀 바를 譜牒의 끝에 쓰다.

仁同張氏大同譜 卷之一

始祖

張金用

金用

高麗三重大匡神
虎衛上將軍享仁
同玉山祠境內有
遺墟碑後孫承熙
撰後孫會植書一
每年清明日享祀

二世

子善

善

金吾衛上將軍

器望
鉉巖大夫對對軍

三世

子震

震

校尉

門事
五巖大夫對對

四世

子國伸

國伸

開府儀同三司內
史門下省內史令

奉詔大夫密直

五世

子信元

信元

及第官職無傳

大將及第官至三

六世

子世林

世林

朝議郎奉御直長

咸平

子百林

百林

號遠慕齋行正憲
大夫議政府右叅
贊天性剛毅正直
立朝四十餘年竭
忠報國累度上疏
抗節直言時值昏
朝極陳奸權輩之
謀孽反爲所誣詆
被天譴竄斥于珍
島三年後蒙恩宥
之命解放之日謝
絕宦意乞骸退南
寓接于咸豐箕穎
之濱樂山水杜門
歛跡欲效果許洗
耳之高致終不出
世道遙林泉琴書
自娛隱德遂志以
享晚福世稱其清
守之節行以天壽
考終于正寢占葬
于郡東五里許校
洞後麓乾坐事載
輿地勝覽及古邑
誌士林齋議餼享

七世

子孝友

孝友

一卷

子孝温

孝温

一卷

子孝良

孝良

一卷

子孝儉

孝儉

一卷

子孝翊

孝翊

一卷